



사람 · 어울림 · 꿈

광장



▲ 9·27청소년기후행동
- 다이인퍼포먼스(좌)
청소년발언(우)

◀ 부천YMCA
청소년자원봉사학교
- 러닝유스



사랑



꿈



아름



광장

가을호(9월·10월·11월) 통권 제162호

01	특집 2	05	세상을 보는 창 34
	부천YMCA 화재복구 리포트 김기현		꽃꽃 한정숙
02	부천Y 3대 과제 캠페인 6	06	의창한담(醫窓閑談) 35
	9.27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미래를 위한 금요일 강화성		[진료실에서 나누는 세상 이야기] 꿀잠과 광장민주주의 박종훈
	대장들네 금개구리농부 대장들네에도 가을이 찾아왔어요!	07	우리 생활문화 이야기 (41) 37
			가을의 무서운 심판 한면희
03	클럽이야기 14	08	회원광장 39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나래' 청소년 활동 소개 [등대·생협] 등대 촛불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나눔장터 김홍여		제주도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 이희성
	[그린합창단] 그린합창단 소개 김현정	09	만화로 보는 밥상특특 42
	[좋은아빠모임] 굿파더즈 이시영		밥상 열둠, 설탕이 나쁜 이유 연은미
04	교실탐방 27	10	함께하는 문화산책 44
	[아기스포츠팀단] 제33회 가족운동회, 우리 모두의 운동회 이야기 김준화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이곳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가?" 왕정현
	[어린이Y] 어린이Y 평화활동 2019 특별한 여름 방학 김혜정	11	부천Y 이모저모 46
			주요일정 및 클럽일정 54



한국YMCA목적문

한국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향상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MCA 새 목적문 전문, 1976년 제정, 2014년 개정)

부천YMCA 화재복구 리포트



김 기 현
(부천YMCA 사무총장)

지난 8월 20일(화) 부천Y 회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부천Y 회원뿐 아니라 지역의 많은 분들, 전국의 YMCA 동역자들과서 걱정하고, 위로해주셨습니다. 발생 안했으면 좋은 일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당시 회관에 있었던 어린이와 실무자 누구도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미한 인명피해도 없이, 차분하고



화재복구를 위해 4층의 많은 짐을 5층으로 옮긴 후, 9월 1일(일) 저녁

슬기롭게 대응했고, 화재복구 과정에도 이사회와 간사회, 회원과 실무자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회관을 만들자”는 하나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화재발생 상황

8월 20일(화) 오후 4시 20분경 화재경보가 울렸습니다. 부천YMCA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며 몇 년 전부터 매달 16일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재경보가 울리자마자 바로 대피를 시작했고, 119에 신고한 뒤, 실무자들이 나누어 화재현장을 확인했습니다.

3층 방화문 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여 실무자 2명이 (당시에 비어있던) 3층에 소화기를 들고 진입했지만 이미 연기가 짙아 대피했습니다. 회관에 있던 어린이와 실무자들이 평소 훈련대로 물 적신 손수건을 들고 차분하게 전원 대피했습니다. 이후 소방차가 도착하여 물 분사를 하자 바로 화재가 진압되었습니다.

당시 어린이와 교사들의 차분한 대피상황을 목격한 주변 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주셨고, 많은 언론에도 “평소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화재원인

화재발생 상황이 그대로 교육실에 있던 CCTV에 녹화되었습니다. 화재원인은 국과수로부터 ‘전기적 요인/ 미확인 단락’으로 통보받아 확인하니 “합선이 되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에어컨 뒤에 있던 드레인 펌프(배수펌프)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상황

화재발생에서 진화까지 시간이 길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교육실 외에 바로

옆 교육실이나, 바로 윗 층에도 화재가 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진, 그을림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부천YMCA 회관은 유아,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이라 **화재복구와 안전설비 및 시설개선**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보험보상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정작 화재가 발생하니 보상범위를 둘러싸고 접사항(시설 피해의 범위, 집기·비품의 포함범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부천YMCA 회관은 많은 유아,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라 보험 보상범위는 추후 결정되더라도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설은 개선하자”고 결의하였고, “독립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현장조사 및 수차례 회의를 거쳐 10월 11일(금) 독립 손해사정인이 보험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접수하였으나 보험금 수령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관운영 및 복구

8월 20일(화)부터 9월 1일(일)까지 1층 평화교육센터에서 임시 사무실만 운영하고 회관은 휴관하였습니다. 청소 및 조속한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화재복구전문업체 4곳의 비교견적을 접구하고, 면접 상담을 거친 후에 ‘(주) 디자인 누보’를 선정하였습니다.

전문청소업체에 의한 청소, 서울시립대에서 빌린 ‘BRAM 공기질측정기’로 실내공기의 안전성을 측정한 후, 9월 2일(월)부터 수영장을 개관하고, 실무자들이 정상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16일(월)부터 (리모델링이 진행되던) 3층 외 전체 회관을 개관하고, 아기사포츄단 개원 및 회원활동을 시작하였고, 9월 30일(월) 회관 전체를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과제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화재복구 및 시설개선을 위한 십시일반 모금과 ‘2020년 부천YMCA 회원되기’를 함께 전개합니다.

부천YMCA 회관은 공익재산이고, 회원 모두가 주인입니다. 회관 건축이 그랬듯이 화재복구와 시설개선도 회원들의 힘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회관’을 만들기 위한 회관 안전점검과 관리매뉴얼을 개선하고, 실무자 각자가 주인된 자세로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Empowering People)”는 부천YMCA의 구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부천YMCA 회관



9.27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미래를 위한 금요일



강 희 성
(부천YMCA 평화교육팀 청소년활동가)

“우리는 멸종위기 청소년입니다”

지난 9월 27일 금요일 오후 5시, 부천지역에서 두 번째로 열린 청소년기후행동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지금처럼 탄소배출을 계속할 경우 인류는 기후재앙을



1.5도를 지키자는 1분50초 Die-in 퍼포먼스

맞이할 뿐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전하며 “우리는 멸종 위기종입니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길바닥에 누워 자신들의 생각을 퍼포먼스와 함께 거리의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환경오염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매일 미세먼지를 마시며 학교를 가고 타는 더위 속에 공부하며 살을 찢는 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갑니다. 저는 이 환경오염을 당연하게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통 받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의 미래, 저의 친구, 그리고 모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윤서, 부명중학교 3학년)



“기후 위기에 대해 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인 제가 지구의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등교거부 시위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런 세계적인 캠페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했고 이 자리에서 기후 악당 국가인 우리나라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전현서, 부명중학교 3학년)



“지난 524 청소년 기후행동 때는 또 혼자서 외치는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걱정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형 누나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는 형 누나들과 함께 더 열심히 외쳐서 다음 기후행동변화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아주 큰소리로 외치게 되길 기대합니다.”

(김현준, 범박초등학교 5학년)

청소년 기후행동에 참여했던 김동휘, 최여민 청소년은 자유발언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담아 11월에는 “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더 잘 알리고 싶다”는 의지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서울과 전국 10여 곳의 청소년과 지지단 500여명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함께하며 정부와 기성세대에게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결석 시위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청소년 기후행동은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알고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9·21 비상행동네트워크 부천YMCA 청소년과 회원들



청소년자원봉사학교(러닝유스) 환경교육



9·21 비상행동네트워크 지구지킴이 퍼포먼스



9·27청소년기후행동 (서울, 출처 연합뉴스)

대장들넉 금개구리농부

대장들넉에도 가을이 찾아왔어요!

"가을바람이 불면 곡식은 혀를 빼물고 자란다"
선조들의 위트가 담긴 속담입니다.

지난 10월에는 두 차례 우리논에 다녀왔습니다.
여름 폭염과 가을 태풍으로 아주 오랜만에 만났지요. 선선해진 가을바람과
가을곡식을 영글게 하는 햇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논에 못 들른 사이, 벼들은 세차례 태풍에 반쯤은 누워버렸지만, 가을
햇살에 자연의 속도로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이날은 논에 사는 가을 곤충들과 식물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왔습니다. 무당
거미, 짹짹하는 섬서구 매뚜기, 잠자리, 벼매뚜기, 귀뚜라미, 대만흰나비, 청
개구리 그리고 여뀌, 피, 작살나무, 닭의장풀, 아까시나무, 개기장, 미국개기
장, 사데풀, 억새, 갈대, 부들,,,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가만히 들여다보니, 평
소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생명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생명
을 품고 있는 논이 지척에 있음이 감사한 하루였네요!

10월 23일은 “초목은 잎이 지고 국화 향기 퍼지며 승냥이는 제사하고 동면할
벌레는 굶히는”¹⁾ 상강(霜降)입니다. 상강은 서리가 내리는 시기로 추수를 서둘

1) 조선 후기인 19세기 중엽, 농사일과 세시풍속을 그린 김형수(金涇洙)의 ‘농가십이월속시(農家十二月俗詩)’에서는 한로와 상강에 해당하는 절기의 모습을 위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러 마치고, 기나긴 겨울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조상들은 동물들(승냥이)도 가을추수의 풍성함을 하늘에 감사하며 제사드린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가족농부들이 농사짓는 금개구리논도 추수를 하였습니다. 낫으로 벼를 베고 홀테로 탈곡을 하며 전통방식으로 지은 한해농사를 두 손으로 거두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5살 친구들도 조심스레 낫을 써보고, 어른들도 생전 처음 홀테질을 해보며 가을 타작마당을 즐겼습니다.

한 해 동안, 벼농사를 함께 지으며, 벼의 일생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큰 비나 태풍이 오면 ‘우리논의 벼들은 괜찮을까?’, 해가 나면 ‘벼들이 햇살받아 잘 영글겠구나’ 벼의 성장에 기뻐하고 걱정하며 안부를 묻는 가족농부들의 모습을 보며, ‘올해 농사도 가족농부들의 사랑을 먹고 풍년이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추수한 쌀은 우리도 나눠먹지만, 일부는 잘 말렸다가 한겨울 대장들녘에 찾아오는 철새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겨울철새들이 올 무렵, 번개모임에서 다시 만나요!



• 곡식이 영글어 가는 대장들넉



• 가족농부들이 경작하는 금개구리는



• 대장들넉의 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농부들



• 말린 옥수수껍질과 소금물에 저린
맥문동 여뀌줄기로 만든 잠자리 솃대



• 대장들넉의 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농부들

대장들넉이 품은 생명들



귀뚜라미



여뀌



부들



무당거미



썩썩거미는 썩썩거미



벼메뚜기



참깨구리



시데풀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나래’¹⁾ 청소년 활동 소개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나래 청소년동아리들은 송내동의 마을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찾아가며 활동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2019년 3월, 청소년동아리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YMCA와 나래에 대해 알아보고, 회칙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6일(토) 청소년동아리 인준식을 시작으로 나래 정식 동아리로서 각 영역별 활동을 진행했으며, 마을축제와 나래행사에 참여하여 동아리 각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인준식 단체사진

1)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은 2014년 새로운 이름(애칭) ‘나래’를 갖게 되었다. ‘나래’의 의미는 첫째, 날개, 날개를 달다. 청소년 스스로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청소년들의 날개짓이 나비효과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 발전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세 번째, ‘나의 미래’의 줄임말로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 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8월 12일~14일까지 금산 서대산드림리조트에서 진행된 2019 여름 청소년평화기행에 동아리가 참여하여 청년기획단(활동, 문화예술)이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나라의 핵심 가치를 경험하였습니다.

이후 동아리별 활동을 진행하고, 12월에 진행될 송년문화행사로 한해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 ‘나라’ 청소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no	동아리명	내 용
1	청소년운영위원회 '나라톡톡'	문화의집 운영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제안 및 기획활동
2	댄스동아리 Shake it	정기연습, 마을축제 및 나라 행사 참여
3	댄스동아리 Copper	정기연습, 마을축제 및 나라 행사 참여
4	보컬동아리 awesome	정기연습, 마을축제 및 나라 행사 참여
5	문화 봉사동아리 쫄쫄미	행복놀이터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6	커피창업동아리 coffee Bank	찾아가는 커피뱅크 진행, 마을축제 및 나라 행사 참여
7	발당장애청소년 난타동아리 소리노리	정기연습 및 공연, 마을축제 및 나라 행사 참여
8	장애청소년 바이올린 동아리 나눔꽃	정기연습 및 공연, 마을축제 및 나라 행사 참여
9	미술동아리 그림으로 만나는 자유	사회문제 고발 그림구상 및 마을축제 참여
10	환경동아리 그리너리(녹색나뭇잎)	환경문제 알리기, 캠페인 활동 및 전시



청소년동아리 인준식, 청소년활동기획단 진행



2019 여름청소년 평화기행



청소년동아리 마을축제 참여

■ 청소년활동기획단

2016년 1월부터 시작된 청소년활동기획단은 민주시민교육, 역사평화기행,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기획과 운영, 평가의 과정에 모두 참여하는,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의 기획자이자 활동가이며 청소년 멘토이기도 한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 청소년문화예술기획단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의집 프로그램 전반에 참여하며 문화예술로 역량을 키운 청소년활동기획단원 중 일부가 2019년부터 청소년문화예술기획단이란 이름으로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과 공연 등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 멘토 및 공연으로 회복적 마을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기획단 - 민주화이북



청소년문화예술기획단-꿈의학교발표회

청소년동아리 참여방법

-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 참가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 면담
- 접수양식 : 홈페이지 - 공지사항 - 동아리 신청서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ndyouth@hanmail.net
(제목은 "2019 청소년동아리 ***신청")
- 문 의 : 032-656-8085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담당자

등대·생협

등대 촛불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나눔장터



김 홍 여

(등대 마을지기, 어린이Y 김동연, 김나연 어머니)

올 해로 15주년을 맞는 ‘행복한 나눔장터’는 촛불 8년차이자 마을지기 2년차로 참여하는 나에게는 맞는 ‘행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처음 장터를 경험하는 신입촛불들이 더 많은 해라 우려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었기에 행복하게 잘 진행할 수 있었다.

촛불로서 참여했던 나눔장터는 어떻게든 더 많은 수익을 내 볼까 하는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마을지기로서 참여한 나눔장터는 사고 없이 안전하고, 함께하는 촛불들이 불편함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여 좋은 경험과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장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

점점 간소화되는 식생활 문화의 변화 속에서 양이 많은 음식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젊은 촛불들이 많아지고, 맛을 내기 어려운 생협재료를 이용해야하는 변하지 않은 원칙을 지켜야하고, 4~6명이 모인 등대별로 50인분 이상의 음식을 준비해 판매해야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모아주고 맛있게 만들어 나누어준 우리 촛불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나눔장터는 또한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한다. 등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자주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아기사포츠단 5세와 6세 아이들의 페이스페인팅 역할로 도움을 청했을 때 한걸음에 달려와 주는 사랑하는 선배 촛불들은 귀여운 아이들이 줄서서 기다리게 만든 인기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그래요 그대로' 등대지기 이경애 촛불의 지인 찬스로 '리즈매직-이영진 마술사님'의 재능기부가 있었기에 훨씬 풍성하고 볼거리 있는 장터가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히트였던 '아스단 깎두기!' 실무자 선생님 2분과 박명애 부장님과 함께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열심히 무를 썰었고 사전 예약을 올리자마자 매진되어 보람도 있었다. 더불어 버무려주고 맛있게 익혀주신 급식방 선생님들의 자발적 참여도 너무 고마웠다. 깎두기만큼 히트는 못 쳤지만 전 마을지기님들과 함께 만들었던 '수제 고추장' 역시 함께 해 주신 선배 마을지기님들께 감사드린다. (수제 고추장은 아직 남아 있으니 구입 가능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함께 맘 써 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 주셔서 해마다 더 나은 나눔장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말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합니다.~



행복한 나눔장터는?

등대활동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공동체 나눔의 장을 펼치며, 자치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3가지 목적을 담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글이, 그레요 등대 "잔치국수"



사랑이 등대 "김치전"



올라잇 등대 "오징어 부추전"



무지개 등대 "잡채"



미인등대 "도토리묵 무침" /
포도넝쿨 등대 "구운 유정란"



꿈품 등대 "사과 게피차, 꼬마도넛"

올해는 지난 10월 17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1개 등대에서 생협재료를 이용해 만든 먹거리장터, 제철농산물 직거래장터, 재활용 나눔장터 그리고 유아들을 위해 재능기부 해 주신 마술 및 봉송아 물들이기와 페이스페인팅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행복을 나누는 장터였습니다.



평강공주 등대 “떡볶이”



등대신화 등대 “떡꼬치” / 열정 등대 “어묵꼬치”



리즈매직 - 이영진 마술사의 마술쇼



재활용 장터



아이들과 함께하는 페이스페인팅과 봉송아 물들이기



그린합창단



김현정
(그린합창단 단장)

1987년 창단된 부천YMCA 그린합창단은 한국YMCA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사랑과 봉사정신을 실현하고, 부천지역사회의 공연예술 활성화와 문화발전에 기여하며 순수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동안 연습하며, 20대에서 60대까지 고른 연령대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들 대부분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합창단입니다.

1년에 한번 씩 그동안 배우고 연주한 곡들은 정기연주를 통해,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소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단체 등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19회 정기연주회
(2017. 11. 9. 울림으로 하나 되는 세상)

1987년 창단 이후, 다양한 음악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천시의 문화축제인 5월 복사꽃합창제에 매년 출연하여 합창단의 기량은 물론 다른 단체의 음악을 공유하며, 발전하고



제43회 복사골합창제 (2019. 5. 5, 부천시민회관)

있고 39회, 40회, 41회 복사골합창제에서는 3년 연속 ‘최우수합창단’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십 여 년이 훌쩍 넘도록 실력있는 오윤형 지휘자님의 한결같은 지도로 더 깊이, 더 겸손히, 더 하나 된 소리를 만들기 위해 호흡을 맞추고 있으며, 함께 해온 시간만큼 단원들과의 호흡 또한 탄탄하고 아름다운 합창단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도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연습에 연습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21회를 맞는 정기연주회는, 오는 2019년 11월 30일(토) 오후 7시 “사무치게 그리운 사랑, 그 아름다운 동행”이란 타이틀로 부천 복사골문화센터아트홀에서 시민들을 초대해 진행합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연주하는 단원들은 물론이고, 찾아오는 관객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그린합창단과 함께 하모니를 같이하고 싶은 새로운 단원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정기연습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부천Y회관 6층

단원문의 : 010-9076-1251 (김현정 단장) / 010-4608-2016 (박순미 총무)

032-325-3100 (부천YMCA 회원운동팀)

좋은아빠모임

굿파더즈



이시영

(한가람반 이다윤, 햇살반 이시윤 아버지)

“아빠 언제 또 갈 거야?” 지난 9월에 가평에서 처음으로 굿파더즈의 1박2일 캠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첫째 아이가 했던 말입니다. 캠핑을 준비하며 했던 많은 걱정들이 뿌듯함으로 바뀌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들과 ‘첫 캠핑이라 서먹하지는 않을까, 엄마가 없다고 울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친구들과 자연이 있으니 서로 의지하며 금세 친하게 어울려 놀았습니다. 냇가에서 피라미와 다슬기를 잡고 저녁식사는 숯불에 바비큐를 하



고 밤에는 LED새총헬기를 날리고 다음 날 아침은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아침식사는 엄마들이 없으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면을 마음껏 먹게 해줬습니다. 처음이라 서투를 것이라 생각했던 아빠들이 준비한 콘텐츠를 아이



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고기를 잘 잡는 아빠, 고기를 잘 굽는 아빠, 새충을 잘 쏘는 아빠, 풍선을 잘 부는 아빠…….’ 아빠들의 다양한 재능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 영종도 갯벌체험을 당일치기로 다녀왔을 때는 아이들도 아빠들도 서 먹했었는데 이번 캠핑으로 한층 더 가까워진 여행이었습니다.

막연히 아이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내다 YMCA에서 아빠모임을 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모임 첫 회의 때 모두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자며 굿파더즈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직은 굿파더즈란 모임이름이 낯간지럽지만 10년 후에도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겠지만 아빠들과 아이들은 좋은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아빠들이 만나 아이들과 다니는 여행에서 얻는 즐거움과 배움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제 막 굿파더즈 아빠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갯벌에서 진흙 묻은 장화를 신고도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아이들, 냇가에서 힘을 모아 다슬기를 한 소쿠리나 잡는 아이들과 좋은 아빠가 되려고 애쓰는 아빠들이 여행을 다닙니다. 엄마들 보다는 서투르고 투박하지만 아빠들끼리 도와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 하며 아이의 몸과 마음이 커가는 만큼 아빠의 마음도 클 수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아빠가 함께 성장하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더 나아가 건강한 가족 만들기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고
실천하고자하는 아버지들이 모여 '굿파더즈' 모임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활동하며 클럽 창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회장 김범수 010-2872-1525

아기스포츠단

제33회 가족운동회, 우리 모두의 운동회 이야기



김 준 화

(어린이Y 임정웅, 한아름반 임정진 어머니)

첫째아이 입단이후 3회 그리고 둘째아이가 입단한 2017년 이후 올해가 6번째 참여하는 운동회인지라 별다를 것 없다는 생각으로 10월 9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거북이 등짝같이 커다란 양푼을 등에 메고 뛰어가는 둘째를 보며 ‘아이들만 신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가슴 덜컹한 일을 겪은 후 진행하는 운동회여서인지 더욱 조심스럽기도 하고 살포시 걱정되는 마음도 가슴 한 켠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맑은 가을하늘 아래 가족운동회의 시작을 알리는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귀여움으로 중무장하며 조심스럽게 들어서는 5세 아이들을 보며 대견함을 느끼고



나의 아이들의 5세 시절을 떠올리며 얼굴에 미소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살 더 많다고 여유롭게 손 흔들며 관중석을 바라보고 들어서는 6세 아이들을 보며 환호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게 되고, 세상 제일 큰 형님인 듯 위풍당당하게 들어서는 7세들을 보면서는 많이 컸구나라는 뿌듯함과 언제 저렇게 컸지하는 울컥함에 혼자 몽클해져보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아이들의 질서정연함과 진지함을 잘 보여준 체조와 마스게임은 운동회마다 보는데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물개박로 환호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음악이 끊긴 그 찰나에도 선생님을 집중하며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이미 깨달은 도인들처럼 느껴지며 ‘대단하다’라는 탄성과 칭찬의 말이 절로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달리기 하나에도 신이 나서 열심히 달리고 생각보다 잘 못뛰어짐에 슬퍼하고 속상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넣으며 오전 시간을 끝내고 찾아온 점심시간은 “유별나게 왜?라며 준비하는 동안 마음 속에 담고 있던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민망해질 정도로 맛있게 먹게 되는 비빔밥의 매력이란 놀랍기까지 합니다. 각자 먹을 만큼의 밥과 계란, 그리고 한 가지씩의 반찬들을 커다란 양푼에 넣고 손으로 쓱쓱 비벼대는 모습은 마치 몇십년을 늘 이렇게 나눠먹던 사람들이 오늘도 일상처럼 먹는 것이라 특별한 일 아니더라는듯 편안함과 익숙함까지 느껴졌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따뜻한 햇볕의 특별함을 누린 후, 드디어 맞이하게 되는 부모님들의 경기시간. 그중 첫 번째 줄넘기는 “80개를 못할 바엔 5번만 넘읍시다”를 외치며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계속 넘게 되고, 더 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또한, 세상 진지한 아빠들이 긴

장대를 앞에 두고 작전을 세우고 전의를 불태우며, 첫 만남의 낯설음 따위는 없다는 듯 딱 붙어서 회전축을 만들어 열심히 돌며 뛰는 모습이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무엇 위해 저리도 열심히 할까’라는 나만의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어느새 내 손에 잡혀 있는 굵은 줄,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둥시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영차! 영차! 땡겨! 누워!’하며 이성의 끈까지 놓고 당기게 되는 줄다리의 매력이란 매번 스스로에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러 사람이 트랙을 매우 열심히 뛰며 돌기만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함성, 응원 그리고 승리했음을 느끼며 누리게 되는 쾌감이란.....

운동회가 끝나고 깨끗하게 치워진 운동장을 보며 “역시 Y”라는 뿌듯함과 함께 불현듯 떠오른 생각으로 인해 묘한 기분이 가슴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아이때문에 참가하는 아가스포츠탄 가족행사로만 생각했던 6번의 운동회가 이젠 더 이상은 경험할 수 없는 나의 마지막 운동회였구나라는. 내 아이만을 위한 응원이 아닌 모두를 위한 응원을 목청껏 소리내고 환호할 수 있었음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줄넘기 한 번에 최선을 다하고, 막대기 하나에 집중을 하며, 줄에 끌려가지 않으려 온몸으로 애쓰던 나의 모든 행동이 단지 아이들만을 위함이 아닌 나 스스로 즐거웠기에 더욱 행복했구나. 뒤늦게 느껴지는 섭섭함과 다시 못 올 그 순간의 소중함에 운동회가 끝난 후에도 한참을 멍하니 빈운동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이와 좋은 추억을 갖게 해주셔서.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이들만의 운동회가 우리 모두의 운동회를 만들어 주셔서.....



어린이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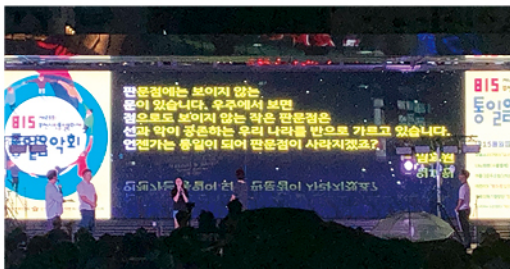
어린이Y 평화활동



임 효 원

(어린이Y 민주시민반)

어린이Y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평화’를 주제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하룻밤캠프에서는 DMZ평화누리길에서 진행된 인간띠잇기 행사에 참여해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비폭력 평화운동의 하나로 진행된 오행시 짓기에서 민주시민반 임효원 어린이가 ‘판문점선언’을 주제로 오행시를 지어 입상하였습니다.

판문점에는 보이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점으로도 보이지 않는 작은 판문점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우리나라를 반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판문점이 사라지겠죠?

효원의 마음처럼 판문점이 사라지는 그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5월 북중접경지역평화기행에 이어 8월 15일 평화음악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어린이들과 방학동안에도 꾸준히 함께 모여 노래와 안무를 맞추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본선 당일 첫 순서로 무대에 올라 맑고 고운 목소리로 어른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 함께 동참해주신 어린이Y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019 특별한 여름 방학



김혜정
(어린이Y 우정반 정지호 어머니)

보통 방학 기간에는 Y를 잊고 지냈는데 이번 여름 방학에는 도예 교실이 새롭게 개설돼서 신선했다. ‘방학 때도 Y에?’ 방학에도 매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는 큰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방학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8월 15일 통일음악회 본선 진출’이라는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놀랐다. 도예라는 새로운 활동과 음악회 공연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지호에게 전에 없는 긴장감과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다.

드디어 8월 14일 오후 7시, 부천역 마루광장에 커다란 무대가 꾸며지고 출연자들은 무대 뒤에서 순서를 기다렸다. 총 출연팀은 10팀. 그 중 첫 번째 순서가 우리였다. 우리 아이들은 몇 명의 재능 있는 아이들 혹은 전문적인 합창 교육을 받은 팀도 아니었다. 사회자의 표현대로 ‘쪽수’로 밀어붙여 무대를 가득 채운 팀

이었지만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을 노래했다. 신나는 댄스곡 ‘비행기’를 개사해서 첫 곡을 불렀는데 음악회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유난히 습하고 무더운 날씨였지만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 앞에서 아이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통일을 노래했다. 지금의 어른들에게 통일은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 세대는 통일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맛다른 통일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새로운 경험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겼는데 수상까지 하다니. 아이에게 의미 있는 기억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마음껏 축하해 주었다. 긴 듯 짧았던 여름 방학이 끝나고 어린이 Y에서 돌아오는 지호의 손에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열어보니 도예교실에서 만들었던 작품들이다. 조물조물 주물러 만든 투박한 컵과 연필꽂이 등이 들어있었다. 그 작품을 볼 때마다 특별했던 2019년의 여름 방학을 추억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상을 보는 창 봄꽃 _ 한정숙



진료실에서 나누는 세상 이야기

꿀잠과 광장민주주의



박 종 훈

(부천YMCA 중경 이사장, 삼화한의원 원장)

‘불면증에 침을 맞아요?’ 불면증을 호소하는 중년부인에게 침을 권했더니 되 물었다. 외아들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갑자기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환자였다. 수면제를 두알 먹어도 신통치 않은 상태, 침 시술만으로 ‘오랜만에 잘 잤다.’며 곧 치유가 되었다. 침은 신, 구를 가리지 않고 불면증에도 효과가 좋다.

요즘 우리사회는 집단불면증에 시달렸을지 모르겠다. 그 수도 어마어마하다. 조국 사태로 광화문과 서초동에, 각자의 주장에 따르면 300만씩 총 600만 명의 민중이 모였다. 모두가 광장에서 주장을 외칠 때까지 양양불락한 가슴으로 제대로 잠을 못 이뤘을 것이다. 압축성장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복잡한 우리사회는 불면증의 온상이다. 그래도 두 곳에 나온 사람들은 울대가 아팠을지 몰라도 “꿀잠”을 잤을 것이다. 가슴과 머리가 뻥 뚫리게 시원했을 터이니. 민중의 율화병, 불면증에는 광장민주주의, 즉 직접민주주의가 특효약이 되었을 것이다.

잠은 건강상태의 좋은 지표다. 정보시대니만큼 손가락 운동만 하면 짹 알 수 있다. 잠은 일상에서 심신과로 상태를 회복시키는 최상의 생리현상이다. 건강, 장수, 성장에 중요하다. 특히 잠을 자는 동안 성장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게 ‘꿀잠’이 필요하다. ‘큰 키의 선망’ 때문에 찾는 학생도 많다.

‘운동하고 잠을 많이 자라, 12시 전에는 꼭 자라’가 코칭의 첫마디다. 그래서 이런 우스개도 만들었다.

“자시(子時/23~01)는 ‘자시오’, 축시(丑時/01~03)는 ‘축 자시오’, 인시(寅時/03~05)는 ‘인나시오’, 묘시(卯時/05~07)는 ‘토끼하면 토끼똥, 응가하시오’, 진시(辰時/07~09)는 ‘진지하시오’ 나머지는 학교시간”

잠은 얼마나 자야 좋을까? 흔히 6~8시간은 자야한다고 알고 있다. 허나 시간보다 질에 있다. 단잠을 자면 적은 시간을 자도 충분히 피로 회복이 된다. 어떻게 하면 단잠을 이룰까? 한방이론은 전문적이고 어렵다.

잠의 과불급, 그러니까 너무 자거나, 부족한 경우 모두 병으로 본다. 너무 많이 자는 것은 기면증(嗜眠症)이라 하는데 허, 실로 나눈다. 허(虛)하 경우는 심기(心氣)부족으로 뇌에 혈액공급이 부족한 경우다. 이른바 ‘병든 닭’같은 상태. 실(實)한 경우는 피가 탁해서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바로 ‘성인병 체질’의 경우다. 당연히 전자는 보기(補氣)를, 후자는 청혈(淸血)을 치료수단으로 삼는다.

반대로 잠을 못자는 것은 불면증이라 한다. 질병, 신경정신 과민, 약물, 커피 등등 원인은 많다. 불면증(不眠症)은 밤낮으로 모두 잠을 못자는 경우. 천면증(淺眠症)은 얇은 잠으로 이른바 토끼잠이다. 난면증(亂眠症)으로 습관이 원인이다. 불면증은 스트레스나 울화로 심장과 간에 열이 쌓여서 오니 열을 풀어 내리고 안정을 시켜야 한다. 대개 완고하고 아주 오래 앓는 경우가 많고 다스리기도 어렵다. 천면증은 심장과 담(쓸개)이 허겁(虛怯)하여 깊은 잠을 못자고 꿈이 어지럽다. 강심(強心), 안신(安神)이 방법이다. 난면증은 늦게 자고 늦게까지 잘 못 일어난다. 요즘 학생들 컴퓨터나 게임, 공부 등으로 붙은 습관인데 병이 아니니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다.

‘대장금’에서 주인공이 중국사신의 불면증을 산조인차로 고치는 장면이 나온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산조인차나 원추리차, 술, 베개 등으로 나올 수 있는 불면증은 불면증도 아니다.

가을의 무서운 심판



한 면 회
(전 부천YMCA 이사)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에 열매가 열리고 가을에 열매가 익어갑니다. 추(秋)는 ‘벼가 햇볕을 받으며 익어가는 모습’입니다. 가을에는 추수를 하니 곳간도 마음도 넉넉합니다. 거둔 곡식으로 떡을 해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라는 말처럼 하늘과 조상에게 감사드리고 이웃과 나누어 먹습니다.

가을에는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마음은 ‘근심 수(愁)’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갑작스러운 병충해, 태풍과 홍수, 도적의 침입 등으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늘을 뒤덮는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곡식을 모두 먹어치우는 광경은 충격적이고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추(秋)의 옛글자 갑골문은 메뚜기의 형상이며 근심들의 대표로 상징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홍수에 대비하여 둑을 쌓았습니다. 또한 도적이나 적군의 침입을 막으려고 영토를 지켰는데 그 형상이 위(圍)이며 한국(韓國)이라는 글자의 원형입니다.

가을에는 떨어집니다. 가을의 물고기는 추(鰍)이니 ‘미꾸라지’인데 미꾸라지는 잡아도 미끄러워 떨어집니다. 가을에는 미꾸라지 뿐 아니라 낙엽도 떨어지

고 모든 것이 떨어지니 영어로도 'fall'이라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떨어져서 낙심(落心)이 되어 외롭고 쓸쓸합니다. 가을에는 잡은 것을 모두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밤하늘이 보이고, 둥근 달이 보이고, 앙상한 나뭇가지가 보이고,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동안 돌보지 않았던 부모형제와 친구가 그리워집니다.

가을은 심판의 계절입니다. 심판을 받을 때는 언제나 무섭습니다. 낫가에 판관 포청천의 추상(秋霜)같은 심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법에서는 과거에 지은 죄를 대상으로 다른 사람이 심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서로 다툼이 많습니다. 나에게 불리하면 발뺌을 하고, 때로는 아니라고 우기고, 모른다고 잡아떼고, 죄를 다른 사람에게 미루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나의 심판도 받습니다. 거울 앞에 바르게 앉아서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양심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은 죄에 대하여 오리발을 내밀며 부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행위와 생각이 모두 내 안에 기록되어 있어서 업경대(業鏡臺) 앞에 서면 동영상으로 다시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법의 심판도 있습니다. 예수님 법에서는 현재만 봅니다. '돌탕의 비유'와 '우강의 사건'은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회개하고 돌아온 현재의 상태만 보고 기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우편의 강도'에게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재의 사람 됨됨이만 보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제주도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



이 희 성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우로부토)

올해 4월, 9월 나래 유랑단 ‘깨네마’ 단원으로 제주도 서귀포시로 지역연계 문화예술 활동을 다녀오게 되었다.

4월 고사리 축제는 따뜻한 봄 날씨를 찾아 여행 온 관광객과 지역주민들로 붐볐다. 작년 4월에만 해도 악기를 두드리고 노래 부르며 근처 부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와주길 기다렸다,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다”라고 인사해주는 분들이 많았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악기를 꺼내 연주하고 노래하고 원을 만들어 춤을 췄다. 그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아이들과 지나가는 행인들, 그중 흥이 나고 신이 나면 어김없이 원 안으로 들어와 같이 춤추고 즐기는 분들까지도



두 모여 서로 눈을 맞추며 춤추는 시간은 우리의 삶에 건강한 에너지를 만들어 준다.

그에 반해 반대쪽 행사장 메인 무대와 관객석을 본 나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순서대로 오는 팀들의 공연을 보면서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한국 사회를 보는 듯했다.

언제부터 축제가 공연자와 관객의 경계가 생기고 공연만 보는 행사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 사이에 끊어진 고리를 다시 잇고 아이들과 어른



4월 제주 고사리축제 부스진행

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는 사람들의 흥과 고리가 아직은 살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신흥 2리의 아이들,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9월 제주 칠십리축제 퍼레이드 진행

처음 보는 서아프리카 악기와 노랫소리에 몸을 들썩이고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 시간 동안 정신없이 춤추고 헤어지기 전에 너무나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해주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지난 9월 말에 다녀온 칠십리 축제에서의 광경은 잊을 수 없다. 리 단위로 참여한 서귀포시 주민들의 퍼레이드 행렬은 2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고 비 오는 곳은 날씨에도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길에서 구경하던 아이들과 주민들은 처음 보는 악기임에도 연주를 하며 지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손짓으로 몸짓으로 화답해 주었다. 주민들의 참여로 시작된 축제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렸던 즐거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것이고, 쳇바퀴 굴러가는 듯이 사는 삶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 나의 생각 속에는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어른들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도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즐길 줄 아는 건강한 사람이 되리라는 믿음도 있다. 타인과의 유대가 끊어진 한국사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춤과 음악으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생각이다.

등대밥상

밥상독특

밥상 열 둘, 설탕이 나쁜 이유!

글, 그림 연은미



1. 보상으로 단 것을 사려고 한다.



2. 짠 음식이 당긴다.



3.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흠...몸이 아프고,
짠 음식이 당기고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이 증상들은...

뭐, 뭔데요?



설탕 중독
이군요!

설탕 중독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선물로 들어온
과자꾸러미를
심심할 때마다
먹은 거 밖에...

과자, 사탕...
여기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줄
알아요?



첨가물만 나쁜 게 아니에요. 설탕은 중독성이 강하고 의존도가 높은 식품이에요.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먹은 후에는 비만이나 당뇨,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설탕, 과당, 액상과당은 몸에 염증을 만들어요. 당 섭취를 많이 하면 칼슘, 칼륨, 비타민 B1 등 영양소를 함께 데리고 빠져나간다고요.

고아아. 무섭다~~

설탕이 왜 몸에 나쁜지 복창합니다. 실시!

첫째,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둘째, 몸속 칼슘을 배출시켜요.

셋째, 몸속에 남을 축적시켜요.

넷째, 짜증 많고 산만해져요.

다섯째, 비만의 원인이 되요.

여섯째, 생리통을 유발해요.

허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도록 해요. 알았죠?

네. 노박사님.

후후. 안녕~ 달콤한 간식들이

실현!!

↳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입맛을 살리는 방법

1. 과일과 친해지기
2. 인공감미료 줄이기
→ 단 것에 입맛이 길들수록 더 단 음식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아스파탐, 사카린 등 작은 양으로 단맛을 내는 군것질에 손이 가게 된다.
3. 깨끗하고 즐거운 나의 집
→ 애초에 단 것의 유혹에 시현 들지 않도록 간식을 놔두지 않는다.
4.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먹기
→ 단호박, 두부, 콩, 견과를 먹자. 마그네슘은 인슐린 대사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충동적으로 설탕에 손이 갈 수 있다.

영양
이데
화
만
내
겠다.

<마침> 다음에 만나요^^

“
당신은 어떨까?
당신은 이곳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가?
”



왕 정 현
(광장기자단, 꿈꿈등대 독서지기)

2년 전 본 책을 다시 꺼내 읽는다.
‘처음 보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꼭 말장난 하는 것 같아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나 하는 놀이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가끔 이런 책이 읽고 싶어진다.
‘나... 먹고 살만해 졌나?’ 아니면 ‘그들의 생각이 궁금해 진건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일수록 사회는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당신의 자유, 당신의 내적 성장, 당신의 영혼, 당신의 깨우침, 당신의 깊은 이해. 그 어떤 것도 사회는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세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놀랍도록 독특하고 유일한 자아라는 존재가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의 신비로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대신 경제는 소비자와 시장의 관계를 말하고, 정치의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말하며, 사회는 대중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과학은 인류와 자연의 관계를 말할 뿐이다.” (26p)

“자신의 모든 것을 한 가지에 쏟아 부어야 할 때가 있다. (중략) 당신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걸을 것인가, 쉴 것인가, 다른 길로 들어설 것인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길가를 둘러보며 여유 있게 걷는다는 것. 그것은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기 위해 신중히 걷는 것이다. (중략) 이제 여행자의 눈으로 그것들을 볼 시간이다.” (84p)

작가 채사장은 그토록 두렵던 타인이 닿을 수 없는 무엇이 아니라 나를 기다려준 존재이고, 타인으로 가득한 세계가 사실은 아름답고 살 만한 곳이라고 말한다. 나와 타인, 나와 세계, 관계의 도구, 또 다른 관계 죽음에 대해 연애, 이별, 인생, 시간, 통증, 언어, 꿈, 죽음, 의식에 관한 40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언젠가 어느 곳에서 당신과 만나 이야기 나누게 되기를 바라며.

*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저자 채사장 | 웨일북(whalebooks) | 2017.12.24



청소년자원봉사학교 러닝유스 활동



9·21 비상행동 네트워크
거리행진 (대학로)

지난 9월 21일(토) UN 기후변화 정상회담에 앞서 기후위기를 알리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체가 된 기후위기 비상행동 거리행진이 대학로에서 진행되었고 부천 YMCA 청소년자원봉사학교 러닝유스 청소년과 회원들은 직접 피켓을 만들어 거리행진에 참여했습니다.



10월 러닝유스 환경 UCC
제작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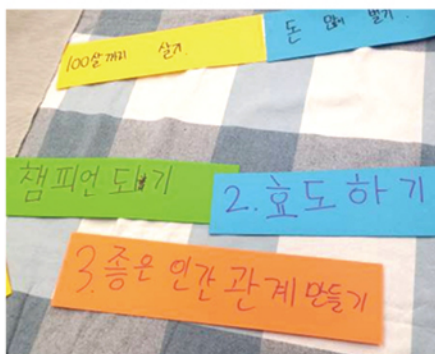
지난 9월 21일(토) UN 기후변화 정상회담에 앞서 기후위기를 알리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체가 된 기후위기 비상행동 거리행진이 대학로에서 진행되었고 부천 YMCA 청소년자원봉사학교 러닝유스 청소년과 회원들은 직접 피켓을 만들어 거리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청소년 마음상담 & 평화감수성교육 - 디딤돌클럽



디딤돌은 기존의 청소년상담실에서 청소년 자원상담 및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YMCA클럽으로 올해 평화교육센터로 전환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부천시역 8개 초·중등학교에서 1,300여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그룹상담 및 교육, 개인상담, 학급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지원 및 평화감수성교육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과 문제로 정서적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삶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며 사랑으로 청소년들을 보듬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사랑의 교실



청소년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은 원미경찰서와 평화교육 센터와 연계하여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6회 진행되었고 청소년 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랑의 교실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와 책임을 인지하는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고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감각활동, 감정 코칭, 갈등 및 평화감수성 활동을 하며 기존의 처벌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청소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평화대학



부천YMCA 시민 평화대학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하여 7월까지 갈등조정 및 평화교육(회복적정의워크숍) 기초·심화 1, 2과정을 마치고 9월부터 3과정을 다시 시작하여 12월까지 4

과정이 평화교육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30여명의 시민들이 교육에 참가하고 있으며 갈등전환 및 갈등조정훈련, 평화감수성 등의 평화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시민평화활동 만들어가는데 토대가 되고자 열심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 NGO 활동가 루이스와의 대화모임



아시아재단 한국지부에서 1년에 1차례씩 아시아의 개발전문가를 선정해 한국을 방문하고 연구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 올해는 동티모르 NGO단체인 Belun에서 Director로 활동하고 있는 루이스(Luis)라는 분

이 선정되었고, 호스트 기관으로 회복적생활교육연구소와 정진 소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0월 4일, 회관을 방문하여 부천YMCA의 주요 시민운동 및 활동을 나누었고, 평화교육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천시민평화대학(회복적정의워크숍)에 참관하여 교육 참가자들과 독립 이후 동티모르 상황과 평화활동들 그리고 한국 및 지역사회의 시민평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1월 5일(화) 오후 7시, 회원들과 함께하는 3차 대화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기스포츠팀단 지리산 등반



7세가 되면 모두들 가고 싶어 하는 지리산 등반,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연기되어 10월 4(금)~5일(토) 7세 69명과 졸업생 어린이Y 13명의 친구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변덕스러운 지리산 날씨라고 하지만 이 날은 산행하기 딱 좋은 날씨에 지리산에 올라 우리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산아! 들어! 친구하자. YMCA 파이팅!

선용클럽



지난 10월 11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로 정기출사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제주도 출사 여행은 제주도로 이사하신 선용클럽의 박혜연 선배님도 오랜만에 뵙고 선용클럽 선후배간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고 제주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촬영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촬영과 더불어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선용 월례회를 진행하며 선용클럽 운영과 Y소식도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박혜연 선배님 덕 마당에 만들어 놓으신 토틀나눔가게에서 각자 집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나누며 풍요롭고 서로에게 힐링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최우수 기관 선정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460개 평가를 2년에 1회 실시, 2019년 5~7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서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이 95점(100점 만점)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시상식은 1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녹색가게 동복정리 및 재고조사



9월 16일(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Y 화관에 있던 동복 13박스를 원미 어울마당에 있는 교복은행에 보내고, 다시 교복은행에 있었던 하복 11박스를 Y 1층 창고에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무거운 교복 박스를 나르고 하나하나 옷걸이에 예쁘게 정리하여, 현재 교복은행에 있는 재고수량까지 파악하느라 하루종일 애써주신 녹색가게 운영위원님들과 봉사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장들넉지키기 활동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시민공모전 출품



대장들넉지키기 시민행동에서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올해로 17 회째 진행하고 있는 ‘이 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 ‘부천 대장들넉’의 이야기를 응모하였습니다. 훼손위기에 처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지역의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여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는 취지로, 환경 및 문화유산 전문가들의 내용

심사와 현장 심사의 선정과정 거칩니다.

지난 9월 20일, 내셔널트러스트 심사위원단이 대장들넉을 방문하여 ‘대장들넉지키기 시민행동’ 대표들과 함께 대장들넉과 대장마을 일대를 둘러보고 이야기 나누는 현장심사가 있었으며 결과는 11월 3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천시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재건을 위한 모임



부천시의 민관거버넌스 회복을 바라는 부천시민들이 모여 10월, 11월 두차례 학습모임을 갖고 '부천시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재건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 23일 첫모임에서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의 발제로 전국지속협 현황과 사례들을 듣고 지속가능한발전 전국활동의 흐름들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0월 23일 두 번째 모임에서는 김성균 박사와 함께 민관협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테이블별로 부천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들을 찾아보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부천의 민관거버넌스,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학습과 공론의 장을 가져갈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부천YMCA 옥상 태양광 설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천YMCA 옥상에 햇빛발전(15.54kw)을 설치했습니다. 햇빛발전 15.54kw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O2 감축량 계산기'에 따르면 연간 7.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합니다. 9월 10일(화)부터 햇빛발전을 시작하였고, 전량 회관에서 사용됩니다.

옥상 태양광 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니어클럽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대회'에서 부천시니어클럽은 사회공헌형 및 시장형 부문에서 각각 우수상, 실버인력뱅크의 사회공헌형 부문 우수상 등 3관왕을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부천시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녹색가게 임원 워크숍



10월 26일(토) 오전 8시 30분부터 27일(일) 오후 3시까지 가평 뽕피 프랑스에서 2019년 녹색가게 임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회관을 벗어나 유명산자연휴양림, 자라섬 등 가평의 가을 단풍과 꽃과 그리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웃음과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늘 녹색가게를 위해 헌신해주시며, 2019년을 평가하고 2020년을 계획하는 1박2일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 운영위원회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서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주요일정 •



실무자 에니어그램 영성수련(5)

일시: 11월 8일(금), 오후 4시
장소: 4층 사랑방

하반기 클럽대표자회의

일시: 11월 11일(월), 오후 7시
장소: 6층 신나는방

11월 정기이사회

일시: 11월 12일(화), 오후 7시
장소: 6층 신나는방

11월 직원나눔

일시: 11월 19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6층 신나는방

2019 부천도시지표 조사분석 발표 "함께 만드는 이야기마당"

일시: 11월 26일(화) 오후 7시
장소: 부천YMCA 5층 체육관

아기스포츠단

2020년도 신입단원 추천

일시: 11월 6일 (수), 오후 5시
장소: 5층 체육관

신입부모교육(1차)

일시: 12월 12일(목)
장소: 6층 신나는방

공개수업

12월 17일(화) -한가람,한누리반
12월 19일(목) -한아름,한겨레반

수영대회

일시: 12월 21일 (토) 9시~4시
장소: 수영장

크리스마스 잔치

일시: 12월 24일(화)
장소: 각반 교실

간사회

일시: 11월 27일(수), 오후 4시 30분
장소: 4층 사랑방

경기도 정책축제

- 3기 신도시 반대,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민공론화를 진행하라

일시: 12월 6일(금) 오후 2시~4시
장소: 수원컨벤션 센터 컨벤션홀3

부천Y 송년의 밤

일시: 12월 26일(목) 오후 7시
장소: 5층 체육관

어린이Y

역사기행단

11월 9일(토), 이천시립박물관
12월 14일(토), 한의학박물관

자연기행단

11월 16일(토), 서울대공원 숲
12월 21일(토), 서산 버드랜드

하룻밤캠프 (1~3학년)

11월 22일(금)~23일(토), Y회관

하룻밤캠프 (4~6학년)

12월 6일(금)~7일(토), Y회관

아빠랑 함께하는 산행

11월 30일(토), 계양산

어린이Y 종강: 12월 26일(목)

청소년상담실

제1기 부천시민평화대학 심화과정

일시: 11월 4일~12월 2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1층 평화교육센터

제2기 부천시민평화대학 기본과정

일시: 11월 5일~12월 3일 매주 화요일,
오전 9시30분
장소: 1층 평화교육센터

청소년 러닝유스

일시: 11월 9일(토), 12월 21일(토)

장소: 1층 평화교육센터

청소년작은영화제(중상동네트워크)

일시: 12월 28일(토), 오전 10시

장소: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심리정서상담

11월 1, 8, 15일(금), 오후 1시 30분 / 성주중학교

11월 5일(화), 오전 10시 / 역곡중학교

청소년인터넷중독교육

11월 4일(월), 오후 1시 30분 / 성주중학교

청소년또래상담교육

11월 5일(화), 오후 2시 / 역곡중학교

11월 8일(화), 오후 2시 / 상도중학교

청소년평화감수성교육

11월 5일(화), 오전 9시 / 역곡중학교

청소년생명존중교육

11월 27, 29일 12월 2일, 오전 9시 / 역곡중학교

체육교육팀

11월 수영등록

재등록: 19일(화)~23일(토)

반변경: 25일(월) 오후 2~6시, 전화접수

신규등록: 26일(화) 오전 8시~오후 8시,

홈페이지 접수

12월 수영등록

재등록: 17일(화)~23일(월)

반변경: 24일(화) 오후 2~6시, 전화접수

신규접수: 26일(목) 오전 8시~오후 8시,

홈페이지 접수

어린이 수영대회

일시: 12월 21일(토)

• 클럽일정 •

사진클럽 <선용>

정기모임

일시: 11월 28일(목) / 12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사 스튜디오

월례회

일시: 11월 14일(목) / 12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5층 나눔방

그린합창단

정기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6층 신나는방

제21회 정기연주회

일시: 11월 30일(토), 오후 7시

장소: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

등대

정기모임

일시: 주1회, 각 가정(저녁등대 격주 1회)

장소: 촛불 가정(저녁등대 YMCA회관)

지기월례회

일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6층 신나는방

저녁등대 지기월례회

일시: 11월 21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4층 교실

등대위원회

일시: 12월 3일(화) 오전 10시

장소: 4층 사랑방

촛불수련회

일시: 11월 9일(토)~10일(일)

장소: 강화 숲길바람길

등대생협협의회

일시: 11월 15일(금), 오전 10시
12월 20일(금), 오전 10시

청소년상담클럽 <디딤돌>

정기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 1층 평화교육센터

아버지교실

월례회

일시: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8시
장소: 5층 나눔방

정기총회

일시: 11월 13일(수) 오후 8시
장소: 6층 신나는방

녹색가게

EM비누 만들기 및 운영위원회

일시: 11월 13일(수), 오전 11시/오후 2시
장소: 7층 옥상, 5층 나눔방

녹색가게 송년회

일시: 12월 16일(월) 오후 5시 30분
장소: 미정

식생활교육클럽 <쌀한톨>

정기모임

일시: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5층 나눔방

월례회

일시: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5층 나눔방

G樂P樂

정기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장소: 5층 나눔방

월례회

일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7시
장소: 5층 나눔방

토요나눔장터 폐막식 공연

일시: 11월 2일(토), 오전 11시
장소: 중앙공원 부천시청 방면 인도

젤베 소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장소: 6층 신나는 방

아프리카 댄스 소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
장소: 6층 신나는방

아빠농구단 소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5층 체육관

붓질공부 소모임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9시
장소: 5층 나눔방

굿파더즈 소모임

일시: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1층 평화교육센터



화재복구와 시설개선을 위한 “2020년 부천YMCA 회원모집”

Empowering People

YMCA는 매년 11월 차기년도 회원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특히 화재복구와 시설개선을 위한 회원모집으로 회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 8월 20일 화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경미한 인명피해도 없었고, 많은 언론에서 “평소의 훈련을 강조하는 사례”로 기사화되었습니다. 화재피해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한 화관’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부천YMCA 화관은 공익재산으로, 회원 모두가 주인입니다.

2020년 부천YMCA 회원 회비 전액은 화재복구와 시설개선에 사용됩니다. 올해는 특히 회원모집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천YMCA 화관건립을 회원들의 힘으로 했듯이, 화재복구와 시설개선도 회원들이 함께 해주십시오.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Empowering People)

후원계좌 : 농협 216023-55-000957[부천기독교청년회]
문의: 032-325-3100, 회원운동팀

(주)일신전기는

1999년 8월에 창립
하어 스위치, 콘센트, 멀티탭, 산업용 전기
배선기구 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실용
배선기구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기업입니다.



스위치, 콘센트, 멀티탭등 차별화된 기능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주)일신전기 배선기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특색있고 디자인 감각도 뛰어난 제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무심히 생각할 수 있는 스위치 하나에도 새로운 감각의 디자인과 하이테크 기술들을 적용하며 빠른 변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주)일신전기는 계속된 기술개발의 노하우로 생활의 안전함과 편리함 그리고 아름다움까지 시대를 이끌어가는 실용배선기구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고자 합니다. 국가와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혁신하며,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앞서가겠습니다.

모든 것은 고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며, 최고의 제품으로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아무리 작은 고객의 소리라도 크게 들을 각오이며 품질개선, 신제품 개발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애정 어린 조언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86번길 34 (주)일신전기 대표자: 김종술
TEL: 032-682-0484~6 FAX: 032-682-0487 | <http://www.iseao.co.kr>